주민 갈등·법정 다툼에 멈춰선 전선망 확충

한전, 전남·전북과 협력 체계 구축…전력계통 확충·개선 노력 무산

전력 산업계, 국가 차원 지원체계 도입 등 '전력망 특별법' 입법 요구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올해 들어 각 지자체들과 송배전망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전력계통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주민 및 지자체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법정 다툼에 휘말리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이에 한전 등 산업계 전반에서는 공기업인 한전 대신 정부가 송배전망 확충 사업을 주도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을 입법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전은 지난 3일 서울시 여의도 전북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에서 전북과 '호남 신재생 생산보급 확대와 전력망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9월 광주시, 전남도와도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및 전력망 건설을 위한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로써 한전은 호남권 전체의 송배전망 확충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한전은 이를 통해 전력수급계획 및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등에 따라 송배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각 지자체 및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전력망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싣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한전이 전력계통 안정 및 확충에 힘을 쏟고 있지만, 오는 2025년 배전망 관련 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지혜 의원이 제출받은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국회에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예산으로 올해 대비 36% 감소한 17억원을 요구했다. 더불어 전선로 지중화 지원 예산 역시 45% 줄여 230억 72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전의 송배전 인프라 확충 사업은 주민 반대 및 지자체의 행정 절차상 지연 등의 문제로 최대 2년 가량 지연되는 등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송배전 설비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과의 갈등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한전은 전국 11개 전력망 확충 사업에서 송배전 시설 준공 전후로 지역 주민 등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 11개 사업에 대해 민사소송 13건, 행정소송 2건, 지원보전 가처분소송 4건, 행정심판 1건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전력망 확충 사업은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2개월까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한전 등 산업계에서는 전력망 특별법 입법을 서두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력망 특별법은 국가 차원에서 송배전망 확충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인허가 특례 및 수용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향후 인공지능(AI),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국내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송배전망 확충 지연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여·야가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는 여·야에서 총 9건이 발의됐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공통적으로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 개선 ▲사업구역 주민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 지원 ▲환경영향평가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전 관계자는 "국가 기간 전력망의 중요성을 각 지자체와 함께 인식하고 상호 협력해 전력수급계획에 발맞춰 송배전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KPS, 기업 ESG평가 3년 연속 'A등급'

한국ESG기준원 발표…환경·사회부문 A+등급 획득

한전KPS는 5일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4년 ESG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KCGS가 최근 발표한 '2024년도 ESG등급'을 보면 한전 KPS는 환경(E), 사회(S) 영역에서 'A+'등급을, 지배구조(G) 영역에서는 'B+'등급을 획득해 종합 A등급을 받았다.

한전KPS는 지난 2022년 최초로 종합 A등급을 획득한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종합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환경과 사회부문에서 지난해보다 한단계 오른 A+등급을 획득해, 매년 발전한 ESG경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는 ESG경영 고도화 전략 가운데, ▲환경정보 공시 정확성 제고 ▲이사회 내 환경경영 안건 검토 ▲투명한 인적자원 정보 공시 ▲사내자격 제도 중심의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부패방지 정책 이사회 보고 및 공개 ▲이사회 정보 공시 등의 부문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이번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ESG 경영전략 고도화 등 지속적인 ESG 경영 실천 노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탄소 감축, 사회책임 경영 등 ESG 경영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CGS는 상장회사 등을 평가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고, 기업 스스로 ESG경영 수준을 인지할수 있도록 7단계 ESG 등급(S, A+, A, B+, B, C, D)을 매겨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평가대상 1066개 기업 중 최고 등급인 'S'는 없었고, 210개 기업이 'A+'또는 'A' 등급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사학연금, 연금업무 담당자 실무 역량 강화 연수 진행

심사·급여 등 주요 분야 강의

현장 적용 가능한 노하우 전수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제주에서 '2024년도 연금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기관 연금업무 담당자의 사학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학교기관 연금업무 담당자 100명이 참여했다.

연수에서는 심사·급여·대여·재해보상 등 연금업무의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사학연금 제도 안내부터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노하우도 제공했다.

연수 둘째날에는 각 기관별 참석자 간 소통 및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제주도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사학연금과 교직원의 가교 역할을 하는 연금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는 연금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연금업무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상호 교류를 위한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SINCE 1952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디지털 중심 기업 도약·ESG경영 실천할 것"

한전KDN, 박상형 사장 취임식

한전KDN은 지난 4일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 빛가람홀에서 제 14대 박상형(朴相亨) 신임 사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박 신임 사장은 1962년생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수도전기공고를 졸업, 방송통신대 통계·데이터과학 학사와 숭실대 IT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지난 1982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2001년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적했다. 박 신임 사장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디지털혁신추진처장, 경영부사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 2015년 원자력 산업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2021년에는 원자력 안전진흥 유공 관련으로 국가산업발전 동탑산업 훈장을 수훈하는 등 원자력 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던 당시, 사이버보안팀장으로서 문제 해결에 중책을 담당했고, 이후에도 숭실대 겸임교수와 중앙대 지능형에너지산업융합학과 특임교수를 역임해 후학 육성에도 매진하는 등 원자력 정보보안 분야와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ICT 신사업의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에 기여한 실적도 인정받고 있다.

박상형 한전KDN 신임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한전KDN은 글로벌 에너지 디지털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과 도약, 현장과 협력사 중심의 동반성장과 상생 경영 실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을 실천하겠다"며 "최근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제2의 창업 정신으로 제구포신(除舊布新·묵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베푼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환경 우수프로그램 전시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16일까지

다큐멘터리 '고래와 나' 상영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오는 16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에서 '환경 우수프로그램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 변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위기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에서는 KC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작지원한 SBS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고래와 나'가 상시 상영될 예정이다.

고래와 나는 다양한 고래 종의 생태를 담아내고,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큐멘터리로, '제51회 한국방송대상' 대상과 '제60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예술상을 수상했다.

이번 전시회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협조로 진행되며, 씨큐리움 해양생명홀에서 고래와 나를 상영하고 전시와 더불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참여 이벤트도 준비했다.

이상훈 KCA 원장은 "이번 전시회가 해양 생태계의 소중함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KCA는 앞으로도 공익적 가치를 담은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